

# 어지럼증에 이명 동반...저염식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 건강 바로 알기 메니에르병

남기성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많은 증상들 중 하나가 '어지럼증'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지만, 그 원인이 다양하고 종종 원인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반복적으로 심한 어지럼이 재발하면서 잘 안들리는 난청과 '윙' 하는 이명까지 들리게 되면, 그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메니에르병'이다.

◇메니에르병이란=회전감 있는 심한 어지럼, 청력저하, 이명, 귀가 딱딱한 느낌(이충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내이 질환으로, 처음 보고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병이라고 부른다. 아직까지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달팽이관 내의 내림프 양이 많아져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지럼증이 특별한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환자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지럼증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40~50대의 여성에

달팽이관 압력 높아지면서 발생 증상 다양해 정확한 진단 어려워 내림프액 조절 증상 완화로 치료 식이요법·약물치료 80~90% 극복 금주·금연에 스트레스 피해야

서 많이 발병하며,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가 연평균 9.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증상=메니에르병의 어지러움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먼저 한쪽 또는 양쪽 귀가 꽉 찬 느낌이 오며, 때로는 청력손실이나 이명이 동반된다. 발병 초기에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난청이 저주파수대에서 시작된다. 이후 심하게 빈방 도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 주, 수개월 또는 수년에 한 번씩 발작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꾸준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이석

증과 달리 메니에르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20분에서 수시간 동안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환자의 약 75%는 한쪽 귀에만 발생하지만 나머지 25%에서는 양쪽 귀에 생긴다. 메니에르병이 생긴 귀는 어지러움 발작이 반복되며 점차 청력손실이 진행된다.

◇치료=메니에르병의 치료가 어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는 발병 원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병인에 따른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환자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치료 후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재발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치료 효과 때문인지 자연적 회복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림프액을 조절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이다. 내림프액 내 당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내림프액이 많아지면서 압력이 상승해 급성 발작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엄격한 저염식(하루 소금섭취량 1.5g 이하)과 금주, 금연,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항이노호르몬의 저하를 유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술은 내림프액의 양과 농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내이로 가는 혈액 순환을 방해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연해야 한다. 또한 이노제와 혈액의 미세 순환 증진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게 되며 증상이 심한 발작기에는 전정억제제와 오심·구토 억제제가 필요하고, 항히스타민제나 디아제팜 등의 신경안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면역 기



조선대병원 남기성 이비인후과 교수가 어지럼증과 이명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진료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능 이상으로 인해 발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활성의 억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저염식이요법과 약물치료로 80~90%는 증상이 잘 조절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중이에 직접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 간단한 방법이고 효과도 좋은 편이지만 일부에서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

으므로 신중하게 시도해야 하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드물지만 항생제를 주입하는 치료로도 어지럼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내이의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할 수 있다.

메니에르병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를 지속해야만 어지럼증 발작을 줄이고 청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의대-전남대 의대 '업무 교류' 협약



### 행정·의학교육 관련 업무 협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직원 상호 간의 행정 및 의학교육 관련 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지난 10일 조선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조선대 박종(오른쪽) 의과대학장과 전남대 이재혁 의과대학장을 비롯해 각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력 세부 분야로는 ▲행정 직원 교육 및 워크숍 ▲학술자료, 출판물 등 상호

교환 ▲행정 및 의학교육 관련 정보 교환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 업무 및 제반 업무사항에 대해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 의과대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와 전남대가 함께 상호 협력해 시대에 맞는 행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류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작업치료·방사선사 100%...동신대, 국가시험 합격률 고공행진

### 물리치료학과 전국 평균 훌쩍

동신대학교가 보건 의료계열 국가시험 합격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국시에 강한 대학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13일 동신대에 따르면 작업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37명이 제49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지난해 4학년 39명이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한 데 이어 2년 연속 100% 합격이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 평균 합격률은 93%, 91%에 그쳤다.

방사선학과는 4학년 59명(편입생 10명 포함)

이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 2921명의 응시자 중 2333명이 합격한 전국 평균 합격률 79.9%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합격률 100% 등 매년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합격률을 올리고, 2017년에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며 명문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경광학과는 제34회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20명 중 19명이 통과해 합격률 95.0%를 기록, 전국 평균 87.5%를 웃돌았다. 물리치료학과도 70명 중 59명(84.3%)이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전국 평균(83.7%)보다 높았다.

동신대는 140여 개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하며 재학생들의 국가시험과 자격증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1~2학년 때 전공 공부를 위한 기초학습을, 3~4학년 때는 전공 심화, 국가고시, 자격증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지원하며 재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국가시험과 자격증 시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건 의료계열의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은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립병원과 대학병원에는 2020년 50명, 2021년 54명 등 매년 50명이 넘는 졸업 예정자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병원, 첨단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도입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최근 가장 최신 버전의 첨단 로봇수술기인 제4세대 다빈치 Xi(사진)를 도입했다. 조선대병원은 로봇수술기를 들여와 한 달간 온·오프라인 교육 및 모의 수술 등을 진행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로봇 수술이란 의사가 최소 부위 절개를 통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하여 수술을 집도하는 최소침습수술을 말한다. 이 수술은 작은 부위 절개로 통증과 출혈이 적고, 흉터 및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 환자의 빠른 회복과 향상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0배까지 시야확대가 가능한 고화질 3D 입체 영상, 손 떨림 방지를 위



한 보정 기능, 정교한 손 움직임 구현 등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